

근거리반간호 - 임상간호연구결과

간호사의 '친화적 의사소통' 중요

간호서비스 만족할 때 병원서비스 만족 높아

간호사의 친화적 의사소통 스타일이 간호서비스 만족, 병원 서비스 만족, 병원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향란 예수병원 간호사와 7명의 연구논문 '환자가족이 지각하는 간호사의 의사소통 스타일, 간호서비스 만족, 병원서비스 만족과 병원 재이용 의도 관계연구'에서 제시했다. 임상간호연구 2016년 12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환자가족들을 대상으로 간호사의 의사소통 스타일(친화적·정보제공적·권위적 유형), 간호서비스 만족, 병원서비스 만족, 병원 재이용 의도 등 4개 영역에 대해 설문조사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

연구결과 간호사의 '친화적 의사소통 스타일'이 간호서비스 만

족, 병원서비스 만족, 병원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다.

첫째, 간호사의 '친화적 의사소통 스타일'은 간호서비스 만족에 56%의 직접적 영향력을 나타냈다. 병원서비스 만족에는 30.7%의 간접적 영향력, 병원 재이용 의도에는 25.1%의 간접적 영향력을 보였다.

이에 비해 '정보제공적 의사소통 스타일'은 간호서비스 만족에 13.9%의 직접적 영향력, 병원서비스 만족에 19.8%의 직접적 영향력, 병원 재이용 의도에 22.4%의 간접적 영향력을 보였다.

'권위적 의사소통 스타일'은 간호서비스 만족에 -19.4%의 직접적 영향력, 병원서비스 만족에 -10.7%의 간접적 영향력, 병원 재이용 의도에 -8.7%의 간접적 영향력을 나타냈다.

그러나 간호사가 권위적 의사소통 스타일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적절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병원서비스 만족이나 병원 재이용 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간호서비스 만족'은 '병원서비스 만족'에 54.9%의 높은 직접적 영향력을, '병원 재이용 의도'에 44.8%의 높은 간접적 영향력을 나타냈다.

셋째, '병원서비스 만족'은 '병원 재이용 의도'에 81.6%의 강한 직접적 영향력을 보였다.

이처럼 간호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병원서비스에 대한 평가 전체나 병원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양질의 간호서비스가 제공됐을 때 환자가족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병원에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돼 병원 재이용 의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연구팀은 "간호서비스 향상을 위해 간호사의 의사소통 스타일을 친화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남자간호사 이직경험 4가지 유형

만족형 - 갈망형 - 생존형 - 혼란형

남자간호사 이직경험의 핵심 범주는 '안정적인 내 자리 찾기'로 나타났으며, 4가지 유형으로 도출됐다.

이는 김현수 인하대 간호학과 박사과정생의 연구논문 '남자 간호사의 이직 경험'에서 제시됐다. 한국간호과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JKAN 2017년 2월호에 실렸다.

연구에서는 3~9년차 남자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

연구결과 남자간호사 이직경험의 핵심범주는 안정적 내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인 '안정적인 내 자리 찾기'로 도출됐다.

이는 남자간호사들이 취업 후 경험하는 혼란스러운 상태와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오랫동안 자신이 머무른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남자간호사로서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직시하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역동적인 적응과정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안정적인 내 자리 찾기의 유형은 '만족유형' '갈망유형' '생존유형' '혼란유형' 등 4가지로 도출됐다.

△만족유형 = 다른 유형에 비해 간호직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간호사로서 자신의 약점과 원하는 근무여건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파악해 적절하게 대응했다. 현실적인 직업기준을 갖고 있으며, 현재의 안정적인 상태와 직장에 만족했다. 가정이 되고 나서의 미래까지 고려해 계획을 세웠다. 시행착오를 할 때 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방안을 세웠다.

△갈망유형 = 높은 급여와 만족할만한 직무를 얻을 수 있다면 언제든지 직장을 옮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현재의 직장에 만족하지 보다는 더 나은 자리를 찾는다. 다른 남자간호사들과 정

보를 공유하며 다른 조건의 직장과 현재의 직장을 저울질한다. 현재의 직장에서 실력을 쌓으며 자신의 가치를 올리고 있었다.

△생존유형 = 문제를 타개하려는 적극적인 도전보다는 현실을 수용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현재의 직장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순응했다. 기존에는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미혼시절과 달리 수동적인 태도로 조직에 순응하게 됐다. 모험을 하지 않을 정도의 직장인 현재 대우와 달라질 것이 없다고 판단해 버리고 있었다.

△혼란유형 = 자신의 능력과 직업 현실, 받고 싶은 대우의 균형이 깨진 상태이다. 임상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고,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채 혼란에 빠져 있으며, 간호사로서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여자간호사와의 관계, 간호사 업무, 병원 시스템에 불만을 갖고 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나름의 해결책을 갖고 새 직장에 취업하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간호사를 차선의 선택으로 간주하며 다른 일을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주혜진 기자 hjjoo@

제주도간호사회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체육대회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회장·강기선)는 국제간호사의 날을 기념해 '한마당 체육대회'를 '행복한 간호사, 행복한 국민' 주제로 5월 21일 개최했다. 회원 및 가족 60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365일 24시간 지속적인 간호를 제공하느라 애쓰는 간호사들의 행복과 사기 진전을 위해 마련됐다.

주혜진 기자 hjjoo@



강기선 회장은 "한마당 한뜻으로 뛰고 달리며 간호현장에서 느꼈던 일상의 스트레스를 말끔히 털어내고 행복을 재충전해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경기도 수원시간호사회 시민 건강상담

경기도간호사회 산하 수원시간호사회(회장·박미미)는 '제10회 수원시간호사회와 함께하는 건강사랑' 행사를 5월 27일 개최했다. 수원시간호사회 임원 및 회원, 간호대학생들이 참여했다.

주말을 맞아 광고산을 찾은 수원 시민 400여명을 대상으로 혈압과 혈당 등을 측정해주고 건강상담을 했다. 수원시간호사회 이름이 새겨진 기념품을 선물하며 홍보활동을 펼쳤다.

박미미 회장은 "건강사랑 행사



를 통해 수원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서 수원시간호사회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부산시간호사회 '간호 문학-사진-UCC' 시상

부산시간호사회(회장·이영은)는 제20회 간호문학·사진 공모전과 제4회 간호UCC 공모전 수상자를 발표하고 시상했다. 각 부문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으며, 간호문학 최우수상은 수상자가 없다.

◇간호문학 △우수작 = '굿바이 마이 프렌드'(시, 배주연·인제대 부산백병원) '연결고리'(시, 이미화·BHS한서병원) △가작 = '마음'(시, 김동현·부산부민병원) '선한 싸움'(수필, 박미향·인제대 해운대백병원) '간호사! 그 아름다운 이름'(수필, 손정화·메리놀병원).

◇간호사진 △최우수작 = '외전한 누나'(김지수·메리놀병원) △우수작 = '책보다 이모가 더 좋아요'(박소희·부산성모병원) '내 혈압 괜찮나?'(임지혜·부산성모병원) △가작 = 'Beyond Infection'(방유진·부산대병원) '환자안전

ing'(이정희·인창대연양병원) '내 손은 약속'(주혜진·부산시 동구보건소).

◇간호UCC △최우수작 = '우리의 손'(부산성모병원 101병동팀) △우수작 = '신생아중환자실 환자 안전 지키기 활동'(부산성모병원 신생아중환자실팀) '초록나라의 하루'(동아대병원 최강수술실팀) △가작 = '고객만족을 위해 Cheer up!'(부산보훈병원 53병동팀) '찬란하게 간호하세!'(부산부민병원 중환자실팀) '해운대백병원 맛! 자상사고'(인제대 해운대백병원 팀).

상금으로 간호문학·사진은 최우수작 30만원, 우수작 20만원, 가작 10만원이 수여됐다. 간호UCC는 최우수작 40만원, 우수작 30만원, 가작 20만원이 수여됐다.

최수정 기자 sjchoi@

간호사신문 휘장 달기 캠페인 참여 안내

간호사신문에서 매주 게재하고 있는 '간호사의 자랑스러운 휘장 달기 캠페인' 코너에 참여하길 원하신다면? 휘장을 달고 근무하는 간호사들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 신청전화 02)2260-2570

기독교간호대학교 김미희 총장 취임

기독교간호대학교 제3대 총장에 김미희 교수가 취임했다. 취임식은 6월 1일 기독교간호대 오웬기념관에서 열렸다.

김미희 신임 총장은 1990년 조선대 간호학과를 졸업했다. 조선대에서 간호학 석사학위, 연세대에서 간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부터 기독교간호대에 몸담아왔다. 산학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평생교육원장, 대학병원의 의장 등을



두루 거쳤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기준 개발위원, 한국성인간호학회 학술위원, 광주시노인간호사회 이사, 국군간호사관학교 군진간호 편집위원, 군건강정책연구소 논문심사위원,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최수정 기자 sjchoi@

경북 영주시간호사회 총회 ... 새 회장 박혜숙 교수

경북간호사회 산하 영주시간호사회는 제3회 정기총회 및 학술간담회를 5월 24일 오후 새 회장으로 박혜숙 동양대 간호학과 교수를 선출했다.



제1부회장에 김은희 경북전문대 교수, 제2부회장에 손미경 청하요양병원 간호과장, 제3부회장에 권경희 영주시보건소 팀장, 감사에 오현주 영주시립병원 간호과장과 김진옥 병품요양병원 팀장이 선출됐다. 초대회장이인 김경숙 세희망힐링스 원장이 고문으로 추대됐다.

윤난숙 경북간호사회회장이 격려사를 했다. 장옥현 영주시장, 이만근 동양대 부총장, 박성만 경북도원의이 축사를 했다. 최효일 국

회의원이 격려메시지를 보냈다. 영주시장인 모범간호사 표창패를 김영숙 성심요양병원 간호과장, 김현진 세희망병원 간호과장, 정소라 영주시립병원 팀장이 받았다.

학술간담회에서는 김연금 동양대 교수의 '춤추는 뇌, 춤추는 간호' 공연구프로그램에 다함께 참여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스템' 주제로 박신진 문경제일병원 간호본부장이 강연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보수교육 프로그램 정보안내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 edu.kna.or.kr

서울대 간호과학연구소 학술대회

서울대 간호과학연구소(소장·탁성희)는 2017년 학술대회를 '새 정부에 바란다: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간호정책 제안' 주제로 5월 12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스코틀랜드 퀸마리아대 James Buchan 교수가 초빙돼 'Nurse Safe Staffing: Lessons from an International Review'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다. 간호인력수급과 적정 배치, 건강보험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간호정책을 제안했다.

탁성희 소장은 "이번 학술대회



는 올해 1~3월 개최한 간호정책 포럼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사회와 보건·의료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간호사의 사회적 역할과 미래간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29년 전통 대방열림고시학원

기술직 공무원 ◀ 간호직 ▶ 보건직 ▶ 보건진료직 ▶ 의료기술직 국가면허시험 ▶ 간호사국가고시 ▶ 위생사 연세대 RN-BSN

최다합격자 + 입소문, 합격생이 적극 추천하는 기술직 명문 학원



- ★ 대방열림고시학원의 강점 ★
- 과목별 수험생 선호도 1위 교수진 구성
 - 매년 기술직 공무원 최다합격자 배출
 - 수강생이 가장 많고 입소문으로 유명한 학원
 - 학원직장을 그대로 촬영한 최신 동영상 강의
 - 최고의 시설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
 - 최신 스마트폰 동영상 강좌 시스템
 - 체계적인 시스템 및 학원직장 연중 무중단 진행

매일 초개강 / 수시등록 가능 / 학원강의 연중 순환식 진행
이론반 > 심화반 > 기출문제반 > 단원별·모의고사 문제풀이반

2018 연세대 RN-BSN

db 대방열림 개강일 : 7월 8일 / 선착순 60명 접수중 노성신 교수

오직 연세대학교 RN-BSN을 위한 특화된 강의로 직장 및 동영상 강의 진행